

‘광주형 일자리’ 국가적 대타협 필요하다

투자협약 막판 협의 ... 노사상생·일자리 창출 유연한 협상을 지역노동계도 무리한 요구보다 향후 영역 확장에 주목해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을 넘긴 가운데 19일부터 투자협약서 작성을 위한 막판 협의에 착수했다. 난항이 예상되지만, 광주시가 지역노동계의 동의를 얻어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업에 투자하고 현대차 등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하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분별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노동계와 지난 13일 작성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 (이하 합의문)을 근거로 하되 이에 얽매어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사상생을 토대로 한 세계 최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든 데 있어 광주시의 역할이 되었고,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18일 “시한은 빠른수록 좋겠지만, 아직 예측할 수 없으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차를 붙잡아 협상테이블에 앉은 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노동계와 작성한 합의문의 각 조항을 현대차와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과 불가피하게 향후 상호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역노동계는 물론 투자자인 현대차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협약서를 내놓기 위해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앞으로 계속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정치권, 전문가 등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역·국민 여론도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일단 투자협약만 체결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가 지역노동계와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의 정신과 원칙을 지향해 나가되 첫 사업인만큼 그 수위를 조절해 노조 반대, 내부 반발 등에 망설이고 있는 현대차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협상팀이 지역노동계로 협상을 일임받은 만큼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며 현대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 명칭



매생이가 물들인 푸른 바다 18일 완도 고금면 상정마을 앞 양식장에서 어선에 탄 어민들이 초겨울바다를 더욱 푸르게 물들이고 있는 매생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대나무 발을 손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그대로 명시하기 보다는 그 의미만 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합의문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지역노동계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이와 동시에 광주시는 신설 법인의 제1투자자로서 제2투자자인 현대차, 그리고 제3, 제4의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야 하는 핵심주체로서 법적 효력을 지닌 투자협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합의문의 정신을 존중하되 현실의 투자협정서에는 투자자로서 가능한 만큼만 담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건 애초에 의지가 없었거나, 이 사업 추진 체계를 안 일하게 생각하며 눈속임을 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부터 비로소 현대차와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최대한 지역노동계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테이블에 앉은 현대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최진석



엄홍길

김정운

박정자

전유성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7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 7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

공합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문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19년 3월~2019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 30분 (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개별문의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광주일보

무등산 첫 얼음 ... 초겨울 추위 '쌀쌀'

오늘 아침 1도까지 '뚝'

이번 주 전남 일부 영하권

무등산에서 올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소설 (22일)이 든 이번 주는 광주·전남지

역 최저기온이 영하권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에서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출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은 1~10도, 최고기온은 14~16도의 분포가 예상된다.

이번 주 (20~25일) 광주·전남 최저기온은 광주 2~3도, 전남 영하 2~10도로 예보됐다. 최고기온은 광주 11~12도, 전남 11~16도를 보여 평년(최저 0~6, 최고 11~15)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아침기온이 낮아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800m지점에 자리한 '얼음바위'에서는 광주에서는 최초로 고드름 형태의 얼음이 관측됐다. 이날 무등산 최저기온은 0.6도를 기록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영호남 청년 교류 '달빛소나기'
- 문화로 소통·나눔·기쁨 ▶ 18·22면
김여울 기자 오카나와 캠프 가다
- 패배에서 답을 찾아라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가, 피부 피로
잘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항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어디든, 마트·아로미시픽 매장·아로미시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